



HOME > 대중공사 > 사설

## [사설] 환희와 감동, 삼보사찰 순례 회향

📍 불교신문 | 🕒 승인 2021.10.26 10:05 | 📄 호수 3688 | 💬 댓글 0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 순례가 18일 간의 길고 험한 여정을 마치고 회향했다. 먼저 수고 인사와 감사 마음을 전한다. 천근 보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추위 더위와 싸웠던 지난 18일간의 장정을 이겨낸 힘은 불교중흥 염원과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국민들의 가슴에 희망을 심어주려는 자비심이었을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 뜻은 송고하고 발걸음은 장엄했다. 멀리서 지켜본 불자들은 순례단에 한없는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결사단은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시작해 법보종찰 해인사를 거쳐 불보종찰 통도사까지 한반도 남쪽을 순례했다. 누적 이동 거리 423km, 1077리 거리를 걸었다. 평지도 있고 내리막 오르막도 만났으며 갈대 우거진 산 능선도 지났다. 거센 비바람이 순례단 앞길을 가로 막기도 했고 가을 따가운 햇볕이 힘든 몸을 무디게도 했다. 캄캄한 밤길을 걷다 웅덩이에 빠져 다치기도 했다. 그래도 묵묵히 걸었다. 단 한명도 불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든데도 도반을 챙기고 서로 격려하며 처음 발원한대로 약속을 지켰다.

걷느라 지친 다리와 추운 바닥에 등을 누여 병든 몸은 아무런 고통도 장애도 아니었다. 불자수와 출가자가 줄어들고 영향력이 약해지는, 한국불교와 종단 앞에 놓인 녹록치 않은 현실이 순례단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을 것이다. 지나는 길에서 스치는 시골의 가을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젊은이와 뛰노는 아이는 보이지 않는 '늙은 시골'이 우리 사찰 현실과 겹쳐 보여 답답했는지 모른다. 지나온 발걸음이 쌓일수록, 몸이 지쳐갈수록 눈빛은 더 험하게 빛난 것은 종단을 걱정하는 애증심, 중생의 아픔을 품는 자비심이 더 크게 자랐기 때문이리라.

순례단은 한국불교 중흥으로 가는 지름길이 따로 없음을 일러주었다. 발에 물집이 잡혀 발걸음 옮길 때 마다 외마디 신음이 절로 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걷고 또 걸어 마침내 불보종찰에 도달했듯 끝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고, 교단을 혁신하며, 사회 속으로 걸어가는 수 밖에 달리 길이 없다. 순례단이 고통을 이겨내며 천리길을 걸어 한국불교와 종단에 전하고자 했던 깨우침이었다.

위례 천막법당 동안거, 자비순례, 삼보사찰 순례로 이어지는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순례단은 이만하면 됐다든 안일한 행태, 내 절 하나 잘 간수하면 된다는 이기주의, 종단을 비방하고 선동하는 반종단 인사들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 지를 몸으로 보여주었다. 지금 일어나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종단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들은 말없이 움직였다. 모든 불자들이 순례단에 찬사를 보내고 경의를 보내는 이유다.

순례단은 목적지 통도사에서 부처님 법신이 모셔진 금강계단 불사리탑을 세 번 돌며 삼배의 예를 올린 뒤 일불제자로서 본분사를 다짐했다. "중생 곁으로 움직이는 불교, 적극적인 불교, 친절한 불교로 나아가겠다"고 발원했다. 그 발원이 순례단의 체험에 머물지 않고 한국불교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으로 승화하기를 기대한다.

[불교신문3688호/2021년10월26일자]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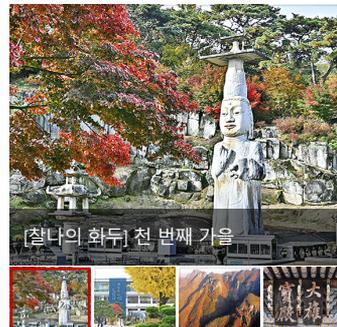


불교신문TV 더보기>

[산사의 미소] 따듯...

[산사의 미소] 따듯한 국물이 생각나...

### 포토뉴스



### 섹션별 최신기사

- 종단 "불교 등 종교특성 잘 살린 순례길..."
- 전국 "찾아가는 사찰음식 도시락 먹고 ... 사회&국제 미얀마 위수파스님 등 제18...
- 인물 [인터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건...
- 대중공사 [여시아문] 푸른 모래의 포구

[산사의

[산사의 미소] 따

### 많이 본 기사

- 1 제2회 탄허학술...
- 2 9000일 기도 회향...
- 3 교구본사주지협...
- 4 [서울국제불교박...
- 5 '경내지 불법 취...
- 6 [서울국제불교박...
- 7 "승가화합이 제1...
- 8 불교문화사업단...
- 9 [서울국제불교박...
- 10 금우당 인각대종...



### 최신뉴스

- 미얀마 위수파스님 등
- 유과 판매 수익금으로
- 지구촌공생회 '굿헨즈
- "불교 등 종교특성 잘
- 법정스님 무소유 사승
- 화엄사 목조비로자나
- [죽음을 철학하는 시
- "일념삼매 들어 부동
- "찾아가는 사찰음식
- 고흥 수도암 대웅전



다른기사 보기



수행&신행 유과 판매 수익금으로 학생...  
문화 제31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대...  
기획&연재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37...  
출판&문학 신라 고승 원효스님 '해골물...  
학술&문화재 법정스님 무소유 사상은 ...  
복지&상담 영주장애인복지관 연탄 1만...

댓글 0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 최신순 추천순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전문서점

www.jbb

02)203

법공양 (기획PR)

BBS 불교방송

만국

방송포교후원

신문사소개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RSS

우)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건지동),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 편집국 : 02-733-1604 | 구독문의 : 02-730-4488 | 광고문의 : 02-730-4490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2197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6446 | 창간일 : 1960-01-01 | 등록일 : 1980-12-11

제호 : 불교신문 | 발행인 : 원행스님 | 편집인 : 현법스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여태동

Copyright © by 불교신문.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CS

